



사진 왼쪽부터 '팬텀싱어3'에 출연한 준노&고영열, 2인조 일렉트로니카 밴드 '글렌체크', 2019년 라틴 그라미 어워드 베스트 뉴 아티스트 상을 수상한 '넬라', 싱어송라이터 '김똥돌'. <ACC재단 제공>

'ACC 월드뮤직페스티벌' 국내외 정상급 가수 온다

26-27일 ACC일대...준노×고영열·글렌체크 등 출연 신진 아티스트 10팀 무대 선사...관객참여 워크숍도

3년 만에 야외공연으로 진행되는 2022 ACC 월드뮤직페스티벌에 국내외 정상급 뮤지션들이 대거 참여해 관람객들에게 특별한 경험을 선사한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재단(ACC재단)은 26-27일 국내·해외의 정상급 가수 12개팀과 신진 아티스트 10개 팀이 참여하는 월드뮤직페스티벌을 개최한다.

이번 축제는 ▲아시아문화광장(ACC 스테이지) ▲빅도어 야외무대(빅도어 스테이지) ▲5·18 민주광장(뮤직 스테이지) 등 야외무대와 실내공간인 ▲예술극장 극장2(월드 스테이지) 등 총

4곳에서 진행된다.

특히 월드 스테이지에서는 우리 국악의 진수를 보여줄 특별한 두 팀의 공연이 준비돼 있어 눈길을 끈다.

행사 첫날인 26일 '남도레거시'에는 판소리 명인 왕기석, 산조 명인 이태백, 진도다시래기 전승교육사 강민수 등 대가들이 남도 지역 음악의 진수를 선보이는 특별 무대가 마련된다.

27일에는 직접 창작한 판소리 작품으로 국내외 공연예술계에서 큰 사랑을 받고 있는 소리꾼 이자람이 판소리의 예술적 독창성과 우수함을 전담해줄 예정이다.

야외무대에서는 한 여름밤 무더위를 날려줄 아티스트들의 공연을 즐길 수 있다.

26일은 국악적 소리와 재즈적 표현이 융합된 '딩기두밥 프로젝트'와 스카, 레게음악을 한국적 감성으로 풀어낸 '유희스카'의 무대로 축제의 서막을 알린다.

이어 국악과 재즈, 블루스, 펑크를 연주하는 국악크로스오버 '밴드남다', 아프리카 전통음악을 기반으로 파워풀한 무대 퍼포먼스와 감성적 목소리를 선보이는 코트디부아르 출신의 '도베 나호르', 팬텀싱어3에 출연해 큰 반향을 일으켰던 '준노&고영열'이 축제의 열기를 더할 예정이다.

27일은 실험적이고 독창적인 음악 세계를 구축하고 있는 '고희안 트리오×이민형', 포크와 록, 팝, 재즈 등의

장르를 넘나들고 있는 떠오르는 신인 싱어송라이터 '김똥돌'의 무대가 펼쳐진다.

또 중요제약약을 재해석해 엠비언트와 테크노를 기반으로 한 사운드를 들려주는 '해파리×다크', 현대적인 팝 감성 아래 다양한 장르의 에센셜을 녹여냈다는 평을 받는 '글렌체크', 베네수엘라의 전통음악과 현대음악, 안달루시안 감성이 섞인 목소리로 세계적 명성을 얻고 있는 '넬라'가 한 여름밤 관객의 눈과 귀를 즐겁게 해준다.

이밖에도 신진 아티스트 발굴을 위한 반디밴드 10팀의 무대가 5·18민주광장 뮤직 스테이지에서 펼쳐질 예정이며, 이 기간 관객참여 워크숍도 열린다.

한편, ACC 월드뮤직페스티벌 유료 공연 티켓은 ACC 누리집에서 구입할 수 있다. /최명진기자

이명숙 초대전, 28일까지 보성백민미술관

조형언어로 표현한 생명의 존재성

복잡한 일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문화적 감성의 순수한 자아를 선보이는 전시가 마련됐다.

보성군립백민미술관에서 오는 28일까지 열리는 이명숙(사진) 작가의 'Life fantasy'전이다.

전시 공간에서는 27m의 초대형 회화 작품 한 점만을 만나볼 수 있다.

생명의 형상을 통해 우리 삶에 본질적 질문을 제안하고, 일상의 변화를 선물하는 작품이다.

일반 대중들에게 다소 생소한 전시겠지만, 부드러운 자연광과 고요하게 드리워진 대형 회화작품은 관람객들에게 새로운 예술적 경험을 선사할 것으로 기대된다.

전시 기획을 맡은 윤익 객원 큐레이터는 "작품은 생명이 지니는 생성과 소멸의 반복적인 이미지를 통해 삶과 죽음의 교차하는 무한의 우주를 제안하고 있다"며 "대면하는 상황의 경험을 넘어 전시 공간에서 작품과 공존하는 실제적 삶의 시공간으로 관객들을 초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명숙 작가는 홍익대 회화과를 졸업하고 미국 미시간대학교에서 수학했다. 국내외 200여회의 단체전, 기획전 등에 초대됐으며, 국내 우수 아트페어에 참가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최명진기자

한희원 '조지아 푸른 바람과 눈물겹게'展...갤러리단정

영혼의 길 찾아 푸른 여행을 떠나다

지역 중견작가로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한희원 작가의 초대전 '조지아의 푸른 바람과 눈물겹게'가 오는 28일까지 서울 갤러리단정에서 열린다.

시인으로, 서양화가로 40여 년을 숨가쁘게 달려온 작가는 2019년 영혼의 안식과 재충전을 위해 조지아를 찾았다. 그리고 조지아의 수도 트빌리시에서 1년간 머물며 매일 한 점씩 365점을 완성했다.

2년이 지난 지금, 작가는 먼 이국에서 홀로 만났던 조지아의 풍경, 캅카스의 대자연에서 불어오는 푸른 바람을 신작으로 새롭게 꺼내 보인다.

이번 전시를 관통하는 정서는 '그리움'이다. 이는 이 하나 없고 의사소통조차 원활하지 못한 이방인으로, 검고 낡은 소파에 파묻혀 잠을 청하고 넘치는 술잔을 기울이며 고독과 맞서야 했던 그 시간이 이제 그에게는 그리움이 됐다.

트빌리시 울드타운, 녹슨 철문이 달린 동유럽풍 건축물, 꽃무늬 이불자락이 휘날리는 뒷골목, 쓸쓸한 등을 마주하고 헤어지는 연인 등 신작에는 화폭 가득 푸른 바람이 그리움과 함께 불어온다. 작품마다 낯설지만 매력적인 조지아의 향기와 거친 촉감이 생생하게 묻어난다. /최명진기자



'바람의 시간'



'트빌리시 밤거리'

박선홍 광주학술상 제1회 수상자에 김정수 씨

'광주땅 이야기' 등 지리 기반 향토사 연구 천착

광주를 중심으로 지역 향토 지리 연구에 천착해 온 향토지리연구회 김정수(62·전남문화재단전문위원, 향토지리연구회장·사진)씨가 광주문화재단 주관 제1회 박선홍 광주학술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광주문화재단은 지난 12일과 19일 두 차례에 걸쳐 박선홍 광주학술상 추천위원회를 개최했다.

김씨는 지난 40여년 동안 광주와 호남, 영산강 등의 지리를 연구하고 이를 발표하는 등 향토에 얽힌 이야기를 지리를 통해 풀어내 고 박선홍 선생의 광주학연구의 계보를 잇는

최적의 인물로 평가돼 수상자로 선정됐다.

김씨는 전남대 출신으로 문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대학 졸업 후 교단에 몸담았던 그는 10여년 전 해직당한 이후 향토지리연구에 몰두했다.

이후 그는 광주동연혁지(1991년), 광주 남구 마을지(2002년), 광주땅 이야기(2005년), 광주광역시 광산구 사 인문지리편(2009년), 한국지명유래집 광주, 나주, 담양(2010년), 유서 깊은 광주 마을-일곡동(2012년), 광주서창지리(2016), 경양방죽과 태봉산지리(2017), 광주양동시장 지리지



(2018), 금남로 지리지(2018), 광주천 지리지(2020) 등 광주 일원을 살살이 돌아다니며 향토사, 지역학을 연구해왔다.

김씨는 또 지난해부터 광주매일신문에 '광주 땅 최초 이야기'란 제목으로 매주 광주의 최초 역사를 찾아다니는 연재물을 기고하는 등 광주학에 대한 왕성한 연구활동을 쉬지 않고 있다.

이밖에도 1995년 발간한 '영산강 삼백오십리'는 민간인 연구자로 영산강 수계의 문화를 총체적으로 섭렵한 명저로 꼽히며, 이후 영산강 지리 연구는 광주 지리 연구와 함께 그의 핵심 연구 과제가 됐다.

박선홍 광주학술상은 '광주1백년', '무등산' 등 근대 이후 광주 향토사 연구가였던 고 박선홍 선생의 뜻을 받아 광주 지역의 역사, 문화, 사회 인문환경 등에 대한 지역학 연구를 활성화하는데 노력한 공로가 있는 인물을 대상으로 추천, 심사를 통해 최종 선정되며, 수상자에게는 상금 500만원과 학술도서 발간 지원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최명진기자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Rg3홍삼을 선물하세요! 시대가 요청하는 Rg3홍삼!

품질을 비교할 때
홍삼성분 함량 꼭 확인!!

- 제품1g당 함유된 홍삼성분 함량
예) 고려홍삼순원액 - 1.6mg/g
홍삼사랑 ----- 2.7mg/g
- 홍삼농축액(홍삼성분70mg/g)기준 비율
예) 고려홍삼순원액 - 2.25%
홍삼사랑 ----- 3.8%
- 주요성분 Rb1+Rg1+Rg3 함량
예) 고려홍삼순원액 - 9mg/포
홍삼사랑 ----- 13mg/포
- 인삼성분을 변화시킨 산삼성분 Rg3
예) 고려홍삼순원액 - 4mg/포
홍삼사랑 ----- 6mg/포



홍삼성분함량과 가격을 비교해보세요!

고려홍삼순원액 50,000원 → 45,000원
홍삼사랑 150,000원 → 135,000원

고품질을 보증하는 바로 이 맛!

한약재, 첨가물 NO!	
홍삼성분 다량 함유	▶ 씹살한 맛
산삼성분 Rg3 다량 함유	
6년근 1등삼 25지	▶ 풋내가 없음
국산 홍삼만 사용	▶ 느끼한 맛 없음
불필요한 고형분 제거	▶ 깔끔한 맛

홍삼성분만으로도 맛과 색이 진하므로
다른 첨가물이 필요없습니다.
혼자 먹기엔 아까운 품질!

| 동별 매장 모집 |

자격 : 6평 이상 매장 준비 가능한 분
보증금 : 없음

(주) 고려홍삼공사 061) 373-8179

www.고려홍삼.shop